

## 제7차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국동식\* · 이상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361-763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Dongsik Kook\* and Sanggi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361-763,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status of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and find problems in operating the system. 485 students in the tenth and eleventh grade were randomly selected as subj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the students, 29% of them selected their science subject without considering their future jobs, 48% did it without enough overview of the system, and 25% did without clearly understanding the details the choice centered curriculum. (2) Among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65% of them showed positive responses concerning the needs of individual choice centered curriculum and 96% said it increased their participation in class. However, only 39% believed that operating this type of curriculum is realistically possible. (3) 89% of students selected their science subjects accordingly with the college preparatory courses and 14% selected based on their hopes. (4) The percentage of science subjects chosen are 40% for chemistry, 25% for biology, 22% for physics, and 13% for earth science, but 74% of students wanted to change their choices. Thes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recognized the object of the 7th curriculum, but selected science subjects as a means of getting into college entrances, rather than carefully considering their future and aptitude.

**Keywords:**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students' perception, science subject choice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학생들에 인식과 그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알아 보는데 있다. 대상은 고등학교 3개교의 10, 11학년(485명)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장래 직업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없이(29%),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48%)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25%) 상태에서 교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에 긍정적(65%)이거나,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졌다(96%)고 생각하고 있어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택 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39%의 학생들이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필요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48%),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41%). 넷째, 과학 과목의 선택은 화학 40%, 생물 25%, 물리 22%, 지구 과학 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 학생이 74%이다. 위의 결과는 학생들이 7차 교육과정의 취지는 인식하고 있으나 과학과목의 선택에서는 자신의 장래나 적성이 고려되지 않고 대학 진학에 따른 해당 대학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과학교사 분포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제7차 선택중심교육과정, 학생의 인식, 과학교과 선택

## 서론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편성, 고교 2, 3학년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재량활동의 신

설·확대,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 과정 평가 체제 확립,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정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0),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현실,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하여 실천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에 학습자를 맞추어 가기보다 학습자의 요구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다(이현주, 2002).

\*Corresponding author: kookds@chungbuk.ac.kr

Tel: 82-43-261-2738

Fax: 82-43-271-0526

21세기는 인간 개인의 다양성을 계발시키고 독창적인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요구하는 바, 1997년 12월 30일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과체제를 갖추고 필수 교과를 축소하고 학생들의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선택중심교육과정이다(이경환 외, 2000a, 2001b; 소경희, 2002).

그런데 고등학교는 종결 교육의 의미와 대학의 진학을 위한 예비 진로 탐색을 위한 계속 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교양과 전문화된 교육의 준비 과정으로서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다 심화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교과목들을 개설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의 개인차가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된 체제가 선택중심교육과정인데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12학년의 2년 동안에 편성, 운영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의 2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일반 선택 과목은 최소 24단위 이상, 심화 선택 과목은 최대 112단위 이하로 편성하여 총 136단위에 미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경환 외, 2000; 김태우, 2002).

선택 과목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의 선택 과목과 이수 단위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부여할 것인가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과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하여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였으나 최저 28단위 이상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의 과목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미래에 선택할 직업,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선수 과목과 후수 과목 등이다(청주여자고등학교 외, 2003).

이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과학교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학교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4개 교과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진학에 필요한 교과와 그렇지 않은 교과, 학습 성취도가 높은 교과와 그렇지 못한 교과,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에 따른 교과의 차이 등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1) 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2) 고등학교 과학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 경향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3개교(남학교, 여학교, 공학 각 1개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256명)과 과학·기술 집중 반을 선택한 11학년(229명)의 485명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과의 선택 경향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사용한 검사도구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과목선택에 대한 신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과학교육을 전공한 현직교사 5인, 교수 1인, 대학원생 3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제고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 = 0.84$ 이다.

## 연구결과 및 논의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과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과목의 선택 경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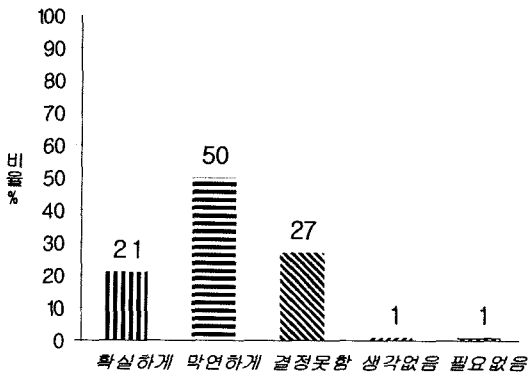


Fig. 1. Students' perception level on their future job.

게 미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선택과 그에 따른 교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Fig. 1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장래 직업에 대한 선택을 확실하게 결정한 경우가 21%, 막연하게 결정한 경우가 50%로 나타났으나, 29%의 학생들은 전혀 장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장래 직업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진로 선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Table 1의 결과와 같이, 불과 10%만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만 알고 있거나(65%)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25%) 교과를 선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2%,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48%이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대답이 65%, 부정적인 대답이 16%로, 학생들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배울 과목을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학습참여도에 대하여 '매우 높아 졌다'가 6%, '조금 높아 졌다'가 43%, '별 차이가 없다'가 47%, '낮아 졌다'가 3%, '매우 낮아 졌다'가 1%로 나타난 것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 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비슷함을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 이외의 것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52%)이 부정적인 대답(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증폭된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과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잘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 '그런 대로 잘 될 것이다'가 35%, '잘 안 될 것이다'가 25%, '전혀 안될 것이다'가 6%로서 31%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1학년보다 2학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암시해 준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의 공급과잉 및 부족(26%), 성적 관리의 어려움(11%), 인기 교사로의 집중현상(9%), 교실의 부족(8%), 이동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6%), 기타(15%)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필요성(48%)과 자신의 특기와 적성(41%)을 고려했다고 응답한 결과(Table 2)로부터 대학진학과 이와

Table 1. Students' perception on the elective-centered curriculum

내용	구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명)	비율(%)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1. 충분히 알고 있다.		5	23	3	2	6	5	4	1	49	10
2.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21	59	47	42	44	47	18	35	313	65
3. 내용을 잘 모르겠다		11	14	18	11	13	31	6	8	112	23
4. 전혀 내용을 알지 못 한다		1	3	0	2	3	1	1	0	11	2
계		38	99	68	57	66	84	29	44	485	100

**Table 2.** Reasons for science subject choice

내 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명)	비율(%)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1.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따라		19	30	31	14	38	33	20	12	197	41
2. 대학 진학의 필요성에 의해		13	54	36	40	15	40	6	30	234	48
3. 친구와 같은 반이되기 위해		1	1	0	0	3	0	1	2	8	2
4. 인기교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		0	1	0	0	0	0	0	0	1	0
5. 교과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5	9	1	2	6	7	1	0	31	6
6. 기타		0	4	0	1	4	4	1	0	14	3
계		38	99	68	57	66	84	29	44	485	100

**Table 3.** Reasons of other subject choice

내 용	구 분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계(명)	비율(%)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1. 학급편성의 어려움		5	16	11	12	15	11	7	3	80	17
2. 교과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15	8	3	3	12	26	6	5	78	16
3. 교육과정에 없어서		8	8	15	5	9	4	1	9	59	12
4. 교실 공간의 부족으로		0	0	0	1	2	2	1	4	10	2
5.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어서		4	8	5	4	0	0	2	3	26	5
6. 과목 군으로 묶여 있어서		2	39	28	30	27	34	9	14	183	38
7. 기타		4	20	6	2	1	7	3	6	49	10
계		38	99	68	57	66	84	29	44	485	100

연계된 장래의 직업을 위해 교과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대학의 필요성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대학의 교과 선택이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에 대하여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이 14%,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 중에 일부만을 선택’이 53%, ‘절반 정도 원치 않는 과목을 선택’이 24%, ‘원하지 않는 과목을 더 많이 선택’이 8%, ‘전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다’가 1%로, 원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Table 3의 결과와 같이, 원치 않는 교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대한 원인으로는 ‘과목 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38%)이 가장 많은데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학생의 다양

한 의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일부 교과들을 과목 군으로 묶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에 제한을 둔 상태로 학교 교육 과정을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선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학급 편성 인원의 정수를 채우지 못해 부득이 다른 교과목을 다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 학생(17%)이나, ‘교육과정에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이 없어서’(12%)라고 대답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택교과와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에서는 ‘성취도가 높아졌다’가 70%, ‘차이가 없다’가 23%, ‘성취도가 오히려 더욱 낮아졌다’가 7%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의한 과학 과목의 선택**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 과목 군을 선택하는 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의 과학(6단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 과학(4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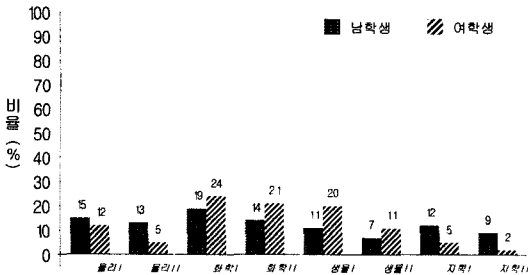


Fig. 2. The rate of science subject choice according to sex.

심화 선택 과목인 물리I(4단위), 화학I(4단위), 생물I(4단위), 지구과학I(4단위), 물리II(6단위), 화학II(6단위), 생물II(6단위), 지구과학II(6단위)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교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화학(40%), 생물(25%), 물리(22%), 지구 과학(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I교과는 60%, II교과는 40%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취도에 따른 과학 과목의 선택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화학 과목과 생물 과목의 선택이 많고 물리 과목과 지구과학과목은 성취도가 낮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화학 과목은 성취도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하였으며 지구과학은 가장 적은 학생이 선택하였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지구과학 과목의 선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최소 2과목에서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II에 해당하는 과목은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한다. 설문조사 결과 4과목을 선택하겠다(87%)는 대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학습의 부담이 있더라도 대학입학 시에 보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 취지와는 상이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남학생은 화학(34%)과 지구과학(26%)의 선택이 많고 여학생은 화학(43%)과 생물(28%)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남학생은 물리(35%)와 화학(33%)의 선택이 많고, 여학생은 화학(47%)과 생물(32%)의 선택이 많았다. 2학년 남학생은 물리의 선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화학과 생물의 선택이 많았고 지구과학은 3%로 가장 적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학년의 경우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만을 수업하여서

대학의 진학에 따른 영향이 적은 반면 2학년의 경우는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교과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공과계열의 대학은 주로 물리과목을 필요로 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성별 과학 과목 선택의 차이점은 물리와 지구과학은 남학생의 선택이 많고, 화학과 생물은 여학생의 선택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학과목 선택의 기준으로는 '직업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가 33%,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이므로'가 32%, '내신에 유리할거 같아서'가 16%, '친구와 같이 배울 수 있어서'가 2%, '기준이 없이'가 8%, 기타 9%로 나타난 것에서 대학진학과 장래 직업이 가장 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의 선택 시에 각 과학 교과에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6%,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 전혀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에서 과학을 공부한 후에 과학 교과 선택이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2학년은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선택한 교과목의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6%, 어느 정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8%,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6%로, 앞으로 변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선택한 교과를 다시 바꿀 수는 없으며 바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목의 선택을 할 때에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과목의 선택 경향을 조사 분석한 것으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래 직업에 대한 확고한 결정이 없이 교과를 선택(29%)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하여 충

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48%)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25%)에서 교과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긍정적(65%)이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졌다(96%)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부정적(39%)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결과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제도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현실 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대학 진학의 필요성에 따라 교과를 선택(89%)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모두 선택할 것(14%)이라는 학생들의 응답은 대학이 고등학교의 교과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넷째, 과학 과목의 선택은 학년이나 성별, 학습 성취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화학(40%), 생물(25%), 물리(22%), 지구과학(13%) 순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을 바꿀 수도 있다(74%)는 결과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 상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과의 적용실례를 10학년과 1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래의 진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된 교육과정과 이전의 교육과정에 의한 학업 성취도 분석도 필요하

다 하겠다.

둘째, 대학의 신입생 선발 기준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되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고 한번 선택한 교과를 중간에 바꿀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 김태우, 2002,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수학교과 선택도 차이에 의한 교육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7 p.
- 교육인적자원부,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요, 교육인적 자원부, 97 p.
- 이경환, 류연수, 이정규, 박제운, 노희방, 유위준, 박은영, 이우룡, 김대원, 2000,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인적자원부, 97 p.
- 이현주, 2002,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물리과정 중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 p.
- 소경희, 2002,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생 선택권'의 의미와 구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0(4), 87-106.
- 청주여자고등학교, 충북, 상당고등학교, 2003, 학교 교육 계획서, 287 p.
- 충청북도 교육청,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I), 184 p.

2005년 4월 13일 원고 접수  
2005년 11월 30일 수정원고 접수  
2005년 11월 30일 원고 채택